

Are You Read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021. 6. 1 (화)

meritz Strategy Daily

전략 공감 2.0

Strategy Idea

2021년 하반기 전망3 주식전망(해설판): Normalization

오늘의 차트

'순환매'라 쓰고 '실적 장세'라 읽는다

칼럼의 재해석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바라보는 Fed의 시선 변화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Strategy Idea



▲ 켄트

Analyst 강봉주

02. 6454-4903

bj.kang@meritz.co.kr

2021년 하반기 전망3 주식전망(해설판): Normalization

- ✓ 하반기 이익 전망치 추가 상향 기대(10% 이상), PER 안정화가 나타나는 '정상화' 국면 예상
- ✓ 2021년 코스피 순이익 145조(Naver 1회성 이익 15조 제외), 2022년 175조로 이어지는 글로벌 대비 최대 강도의 이익 성장세 전망, 하반기 코스피 3,000pt ~ 3,500pt 전망
- ✓ 하반기 최선호 업종(화장품, 건설, IT하드웨어, 반도체, IT가전) 및 투자 유망 종목 선별 제시

이익 전망치 급격한 상향, PER 소폭 하락하는 '정상화' 국면 지속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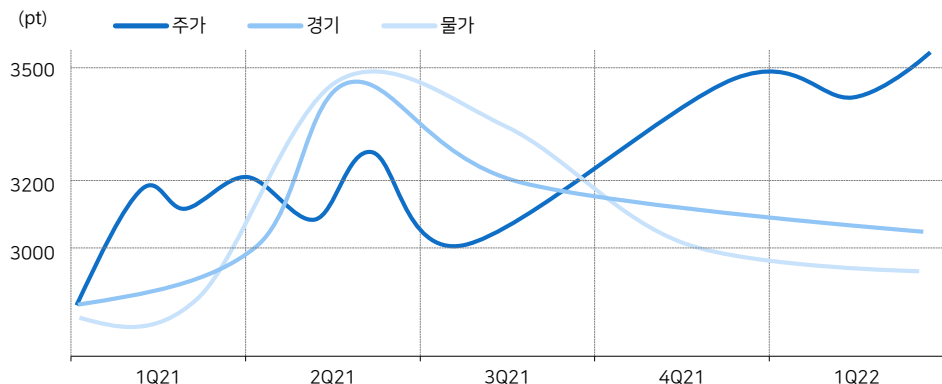
본 자료는 지난 5월 24일 발간된 메리츠 투자전략팀의 하반기 증시 전망 '위험한 시대, 위험한 내러티브'의 국내 주식 부분 해설판 자료이다. 결론적으로 하반기 국내 증시는 KOSPI 적정가치 상단 3,500pt, 하단 3,000pt를 전망하며 투자매력도 최상위 업종으로 화장품, 건설, IT하드웨어, 반도체, IT가전을 제시한다.

하반기 코스피 적정 가치 범위 :
3,000pt ~ 3,500pt

최선호 업종 : 화장품, 건설,
IT하드웨어, 반도체, IT가전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이익 전망치의 상향 지속, PER의 소폭 하락이 나타나는 '정상화' 국면을 예상한다. 상반기 어닝 서프라이즈,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인 가치주 업종은 전반적 추가 상승보다는 일부 업종의 선별적 강세를 예상한다. IT 등 성장주 업종은 3분기 보다는 4분기에 2022년의 20% 전후의 높은 이익 증가율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림1 2021년 하반기 KOSPI 동선: 이익증가, PER 안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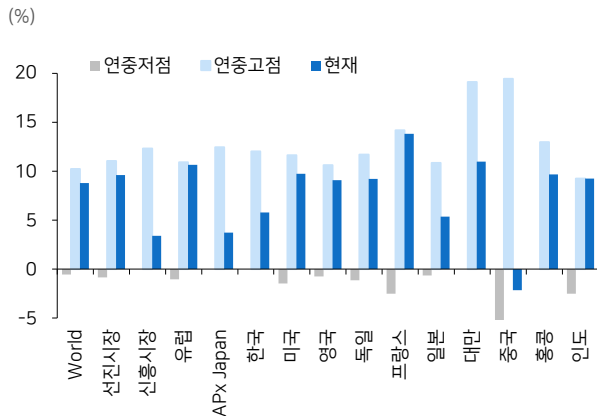


주: 경기 궤적은 전년대비 성장률, 물가는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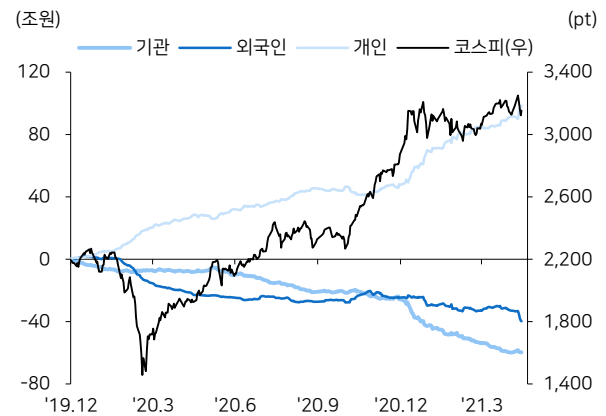
연초 이후 주요국 증시는 10% 전후로 상승했으며 미국 등 선진국 증시 수익률이 신흥국 증시 수익률을 소폭 상회했다. 국내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 기준 2020년 40조, 2021년 51조 순매수, 국내 기관 26조, 34조 순매도, 외국인 17조, 15조 순매도를 기록했다. 작년 2분기 이후 기업 실적 서프라이즈가 지속됐으나 2021년 연초 코스피 3,200pt 이상의 단기 급등으로 주요 종목 밸류에이션이 크게 상승하며 외국인, 국내 기관 매도세가 지속됐다는 판단이다.

그림2 주요국 연초 이후 수익률_연중 저점, 고점, 현재



자료: Refinitiv,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코스피_2020년 이후 투자 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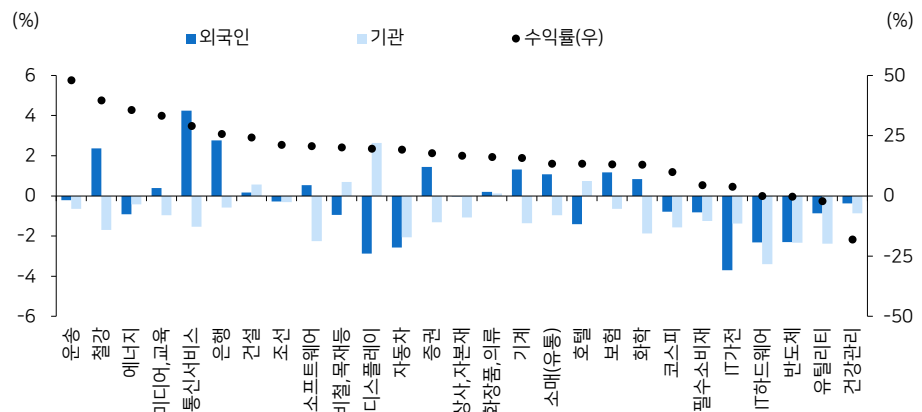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연초 이후 외국인 매매의 주가 영향력 강화

국내 업종별로는 연초 이후 수익률 상하위 업종 간의 외국인 매매 차이가 뚜렷했다. 외국인 매수 업종 강세, 매도 업종 약세 패턴이다. 외국인 매수 강도 상위 업종은 철강, 은행, 통신으로 이익 전망치 상향 및 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업종이다. 자동차, IT에 해당 외국인, 기관 매도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연초 사이의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해석된다.

그림4 업종별 수익률 vs 투자주체별 수급강도_연초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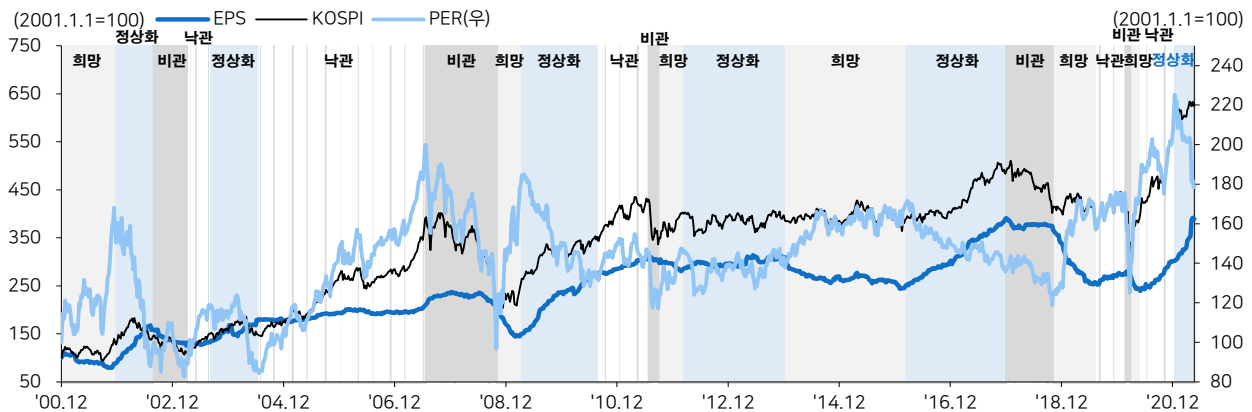
주: 투자주체별 수급강도는(연초 이후 누적순매수 / 평균 시가총액)으로 계산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이익 전망치의 개선, PER은 소폭 하향되는 '정상화' 국면 예상

필자는 이익 전망치와 PER의 방향성에 따라 증시를 비관, 희망, 낙관, 정상화의 4개 국면으로 구분한다. 4개 국면의 전환 순서는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주가가 이익을 선반영함에 따라 '희망 → 정상화 → 비관 또는 낙관' 사이클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작년 11월부터 연초 증시 급등 이후로는 국내 증시는 PER 하향, 이익 전망치 상향 지속의 '정상화 국면'이 진행중이다. 필자는 하반기에도 이익 전망치 상향 지속, PER은 연초 15배에서 하향된 11~13배 범위를 예상한다.

그림5 이익 전망치, PER의 방향성에 따른 증시 4국면 구분: 희망, 정상화, 낙관, 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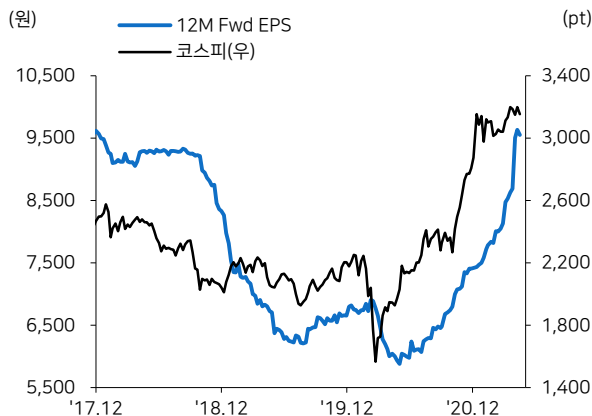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이익 전망치의 상향 긍정적 밸류에이션 부담은 연초 이후 크게 완화됐으나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10% 정도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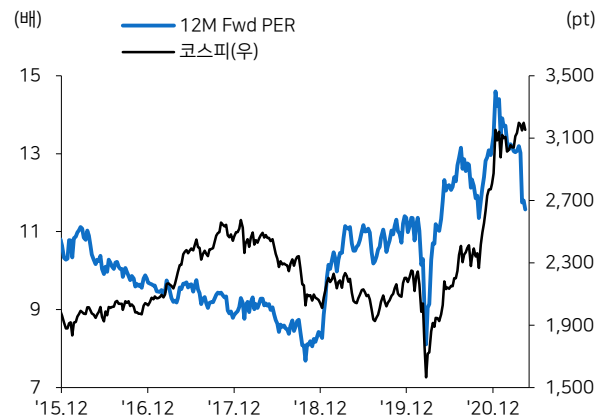
올해는 큰 폭의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과거 2010년, 2017년 사례와 유사하다. 국내 증시는 2019년 큰 폭의 이익 감소 이후 2020년부터 큰 폭의 이익 턴어라운드가 예상됐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에는 16.6% 이익 증가를 나타냈다. 한편, 2021년은 70% 전후의 이익 증가, 2022년은 20% 전후의 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한편, 12개월 예상 PER은 최근 12.5배로 연초 15배에 비해 15% 이상 하향되며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게 해소됐으나 2019년 이전의 범위 상단(11배 초반)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6 한국 12개월 예상 EPS vs 코스피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한국 12개월 예상 PER vs 코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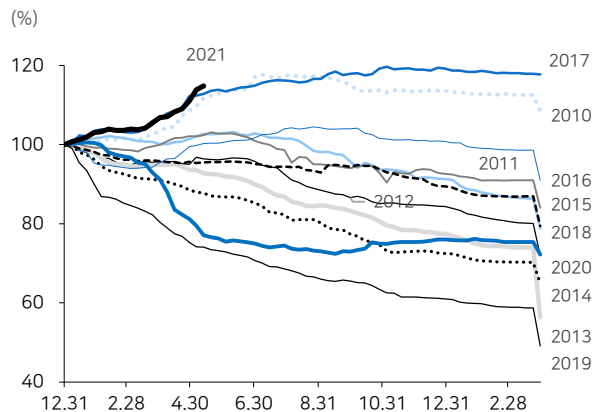
주: 차트는 Naver 1회성 이익 포함된 수치이며 미포함시 12.5배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올해 이익 전망치 상향 속도는
과거 대비 가장 빠름
하반기 PER 추가 하향폭은 10%
이내로 예상

올해 이익 전망치는 연초 이후 14% 상향조정 됐으며, 과거 이익 상향 연도에 비해서도 상향 속도가 가장 빠르다. IT, 금융, 소재, 산업재 등의 이익 전망치 상향이 가팔랐다. 과거의 이익 전망치와 이후 확정치 패턴을 고려하면 내년 3월에 확정될 실제 발표 이익은 현재 대비 10%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연초 대비 크게 하락한 PER은 하반기에 추가 하향폭이 10%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8 과거 연도별 이익전망치 변화 패턴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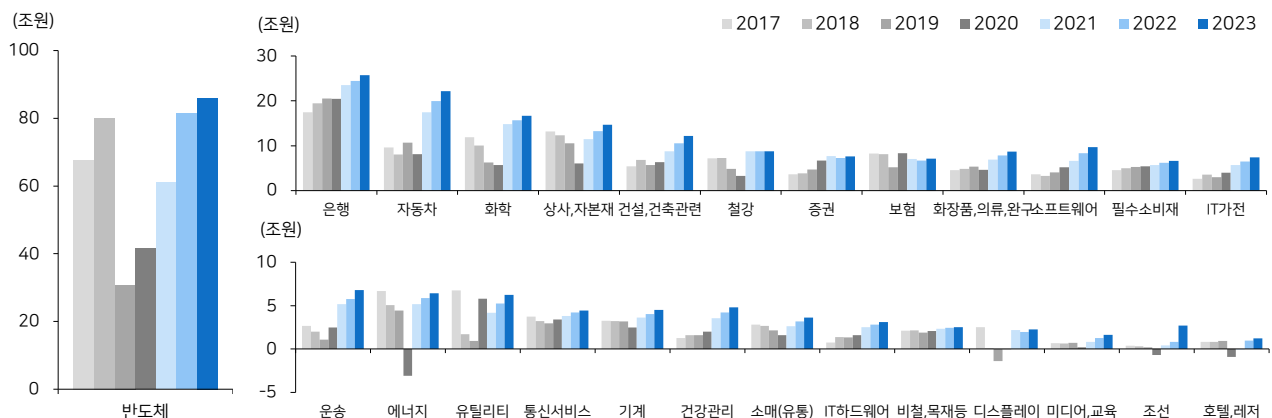
그림9 과거 정상화 국면의 PER 하락 경험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업종별로는 2023년까지의 전반적인 이익 상승이 예상된다. 현재 전망치 기준으로 반도체는 2023년까지의 이익 성장 최대치가 2018년 최대치를 크게 뛰어 넘지는 못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상반기 강세 업종인 철강은 2022년 이후의 추가 이익 성장폭이 낮다는 점이 약점이다. 한편, 건설, 화장품, 소프트웨어, IT가전, IT 하드웨어 등은 과거 이익 최대치 갱신, 계단식 이익 성장 전망이 긍정적이다.

그림10 업종별 연간 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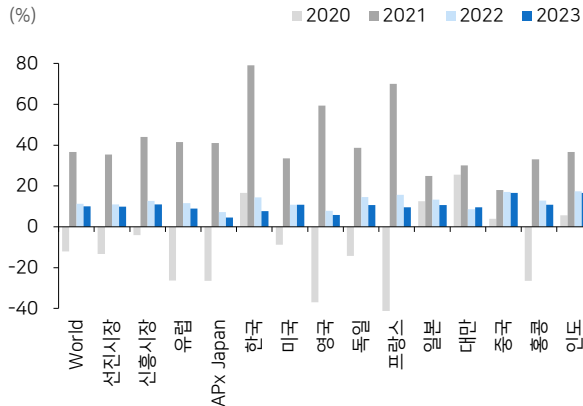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국 이익 전망치 상향 지속 한국의 상대적 강세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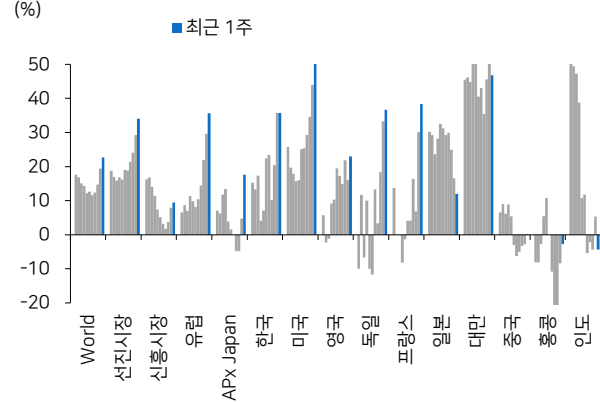
국가별 비교로 시야를 돌려보자. 한국 2021, 2022년 이익 증가율은 79%, 15%로 선진국(35%, 11%), 신흥국(44%, 13%) 대비 크게 우세하다. 특히 2021년 Naver의 일회성 이익(15조)을 제외하면 2022년에도 20%이상의 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 미국 등 주요국 증시가 1분기 기업 실적 서프라이즈로 이익 전망치 상향 지속이 지속되고 있으며 유럽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림11 주요국 연간 EPS 증가율



자료: Refinitiv,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국가별 EPS 순상향 회사수 비율_최근12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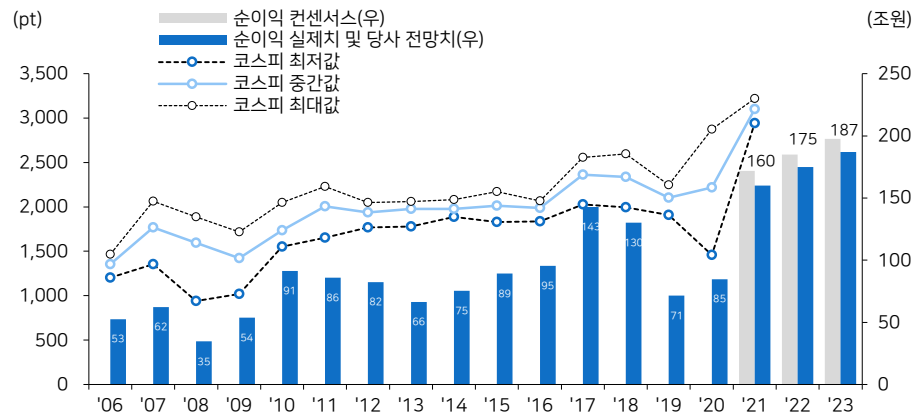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021년 코스피 순이익 160조 (1회성 이익 15조 포함) 2022년 175조 예상

한국의 연도별 이익 전망치를 정리해보자. 연초 이후 2021년, 2022년 이익 전망치 모두 10% 이상 상향조정될 정도로 이익 성장 기대감이 강화됐다. 2021년, 2022년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는 컨센서스 기준 각각 172조, 185조. 2021년 순이익 중 Naver의 일회성 이익 14.9조(해외 법인 지분 공정 가치 평가) 고려시 각각 157조, 185조에 해당한다. 필자는 과거 이익 증가연도의 이익 전망치, 실제치 괴리율 중앙값(6%)을 적용하여 2021년, 2022년 순이익 160조, 175조를 예상한다.

그림13 연도별 순이익 및 코스피 범위



주: 2021년, 2022년, 2023년 순이익 실제치 부분은 당사 전망치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021년 하반기 코스피 적정 가치 : 3,000 ~ 3,500pt

하반기 코스피 범위는 '주가 = 12개월 예상 PER * 12개월 예상 순이익' 관계식으로 예상한다. 2021년 연말에는 '12개월 예상'이 '2022년'에 해당한다. 5월 14일 기준 코스피는 3,153pt, 2021년 이익 기준 PER은 Naver 1회성 이익(14.9조) 포함시 12.4배, 미포함시 13.5배, 2022년 PER은 11.5배이다. 현재 2021년, 2022년 순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172조, 185조이다. 필자는 과거의 전망치, 실제치 괴리율(6%)을 적용하여 2021년 160조, 2022년 175조를 예상한다.

코스피 적정 가치 상단 3,500pt :
연말 시점의 2022년 순이익 전망치 195조(현재보다 6% 상향)
PER 12.1배에 해당

코스피 적정 가치 상단 : 이익 전망치 상향 추세가 소폭 완화되더라도 연말 시점에는 2022년 순이익 전망치가 6% 상향된 195조로 형성될 전망이다. PER은 이익 증가에 따라 연초 15배 이후 감소 추세이며, 연말 '12개월 예상'은 2022년에 해당하며 2022년 PER 12.1배 적용시 코스피 3,500pt가 도출된다.

코스피 저평가 기준선 3,000pt :
2022년 순이익 전망치 175조
(6% 하향), PER 11.5배에 해당

코스피 저평가 기준선 : 2022년 이익 전망치가 하반기 중 6% 하향조정되어 175조로 형성됨을 가정한다. PER도 연초의 15배에서 크게 하향된 11.5배를 가정하면 코스피 지수 3,000pt가 도출된다.

표1 KOSPI 전망 시나리오: KOSPI = PER × EPS

KOSPI, PER, 순이익 전망 시나리오_Good & Bad Case		현재_컨센서스	메리츠전망	
			Good Case	Bad Case
KOSPI 지수(pt)		3,156	3,500	3,000
PER(배)	2021년 순이익 기준	12.4		
	2022년 순이익 기준	11.5	12	11.5
순이익 컨센서스(조원)	2020년	85		
	2021년	172	180	160
	2022년	185	195	175
순이익 실제 발표치(조원)	2021년		160	160
	2022년		175	175

주: 5월 21일 코스피 3156.42pt 기준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2 KOSPI 전망 시나리오: KOSPI = PER × EPS

(pt)		PER_2022년 순이익 기준(배)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14.0
2022년 순이익 전망치 (조원)	170	2524	2650	2776	2902	3028	3154	3281	3407	3533
	175	2598	2728	2858	2987	3117	3247	3377	3507	3637
	180	2672	2806	2939	3073	3206	3340	3474	3607	3741
	185	2746	2884	3021	3156	3295	3433	3570	3707	3845
	190	2820	2961	3102	3243	3385	3526	3667	3808	3949
	195	2895	3039	3184	3329	3500	3618	3763	3908	4053
	200	2969	3117	3266	3414	3563	3711	3860	4008	4156
	205	3043	3195	3347	3500	3652	3804	3956	4108	4260

주: 5월 21일 코스피 3156.42pt 기준, 코스피지수 3500pt는 PER 12.1배 적용 시 수치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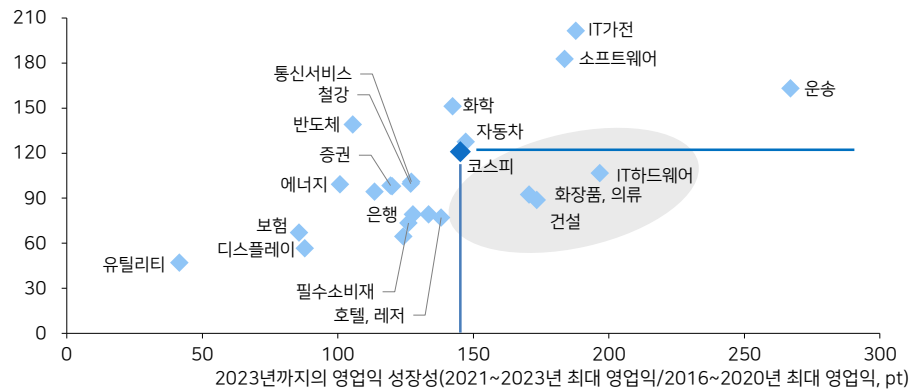
하반기 투자 유망 업종 및 유망 종목 스크리닝

2023년까지의 최대 이익 성장성이
과거 대비 주가에 덜 반영된
업종 : 화장품(의류), 건설,
IT하드웨어

하반기 투자 유망 업종 선별은 2가지 기준으로 제시한다. 첫 번째는 올해 이후 2023년까지의 영업익 최대 전망치를 2016~2020년까지의 최대 영업익과 비교하고 현재 주가 수준을 2016~2019년 최대 주가와 비교하는 것이다. 즉, 향후의 최대 이익 증가폭이 현재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과거 최대 주가 대비 비율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코스피 전체보다 이익 최대 성장폭 높고, 주가가 저평가된 업종은 IT하드웨어, 화장품(의류), 건설로 판단한다.

그림14 투자 유망 업종 선별1: 과거 대비 영업익 증가폭 높고 주가는 저평가된 업종

현재 주가 수준(현재 주가/2016~2019년 최대 주가, 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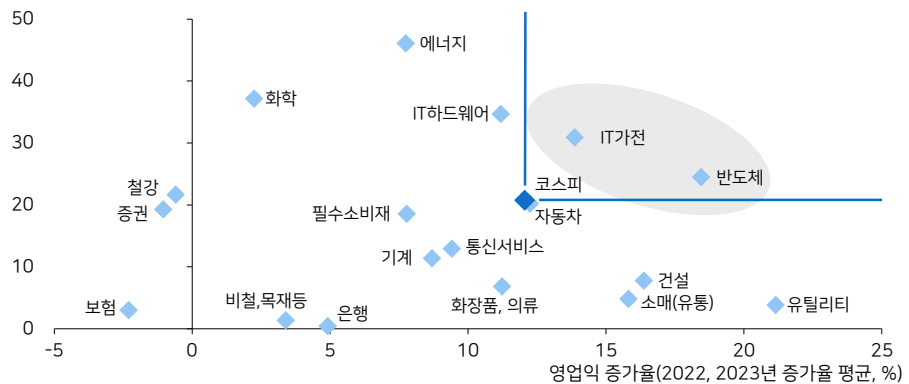
자료: F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022, 2023년 이익 성장성 높고
연초 대비 PER 하락폭 큰 업종 :
반도체, IT가전

두 번째 투자 유망 업종 선별은 2021년 연초 기록했던 PER의 최대 수준과 현재의 PER을 비교하고, 연말로 갈수록 투자 지표상 중요해질 2022, 2023년 이익증가율을 평가하는 것이다. 즉, 내년 및 내후년의 성장성에 비해 연초 대비 PER 하락폭이 큰 업종을 선별하는 식이다. 이 관점에서 투자 유망 업종은 반도체, IT가전으로 평가한다.

그림15 투자 유망 업종 선별2: 2022, 2023 영업익 증가율 대비 PER 하락폭 큰 업종

PER 저평가 수준(2016년 이후 PER 최대치 대비 할인율, %)



자료: F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하반기 투자 유망주1: 2023년까지의 이익 증가폭 대비 저평가 종목

- 1) 팩터 모니터링과 증시 국면 판단을 통해 하반기 주가 영향력이 투자 지표의 조합으로 종목 선별
- 2) 과거(2016~2020년) 대비 2023년까지의 최대 영업이익 전망치 대비 현재 주가가 과거(2016~2019) 대비 낮은 종목 선별
- 3) 추가 선별 조건으로 2021, 2022년 PER 20배 이하, 2021, 2022년 eps 증가율 각각 10%, 5% 이상

표3 스크리닝1: 2023년까지 이익 절대치 성장폭 대비 주가 매력도 상위

코드	종목명	업종	시총 (조원)	주가 (원)	21~23 영업익 최대 /16~20 영업익 최대 영업익비율(%)	현재주가 /16~19 최대주가 주가비율(%)	PER (배)		PBR (배)		EPS증가율 (%)		ROE (%)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A000270	기아	자동차	33.5	82,700	237.6	159.7	8.3	7.4	1.0	0.9	170.8	12.7	12.8	12.9
A032640	LG유플러스	통신서비스	6.4	14,650	141.8	78.3	9.5	8.4	0.8	0.8	44.3	12.6	8.9	9.4
A267250	현대중공업지주	에너지	5.6	71,400	169.5	73.0	13.6	10.9	0.7	0.7	흑전	24.8	5.8	7.1
A011070	LG이노텍	IT하드웨어	4.6	193,500	166.8	102.9	7.2	6.8	1.5	1.2	168.4	5.5	23.2	19.9
A001040	CJ	상사,자본재	3.0	104,500	135.1	37.1	14.2	10.4	0.7	0.7	203.1	36.0	5.6	7.3
A047040	대우건설	건설	3.1	7,570	157.6	91.0	6.3	5.2	1.0	0.8	77.2	21.2	17.3	17.7
A282330	BGF리테일	소매(유통)	3.0	174,000	132.3	69.9	19.0	16.4	3.7	3.1	29.1	16.0	20.9	20.6
A004170	신세계	소매(유통)	3.0	302,000	127.1	63.5	12.4	10.2	0.8	0.7	흑전	21.7	6.7	7.6
A010060	OCI	화학	3.0	127,500	139.8	68.2	12.3	10.4	1.2	1.1	흑전	18.9	10.0	10.8
A006260	LS	기계	2.2	69,400	161.1	75.4	9.1	7.8	0.6	0.5	94.1	15.9	7.3	7.9
A007310	오뚜기	필수소비재	2.0	549,000	103.5	38.3	16.0	14.1	1.3	1.2	17.4	12.8	8.7	9.2
A010780	아이에스동서	건설,	2.0	63,700	126.8	103.1	12.7	8.7	1.5	1.3	24.5	46.8	12.6	16.6
A241590	화승엔터프라이즈	화장품,의류	1.1	18,050	175.5	101.4	18.6	11.9	1.9	1.7	46.9	55.6	10.8	14.9
A192820	코스맥스	화장품,의류	1.2	116,500	211.9	61.9	18.1	15.5	3.0	2.5	208.5	17.2	17.7	17.7
A214320	이노션	미디어,교육	1.2	59,600	129.9	67.1	15.5	13.6	1.5	1.4	21.3	13.5	9.8	10.7
A064960	SNT모티브	자동차	0.9	62,900	136.1	72.0	10.5	9.6	1.0	1.0	61.2	8.7	11.1	11.1
A049770	동원F&B	필수소비재	0.9	225,000	125.1	55.4	10.0	9.2	1.1	1.0	11.0	9.1	11.0	11.0
A079550	LIG넥스원	상사,자본재	0.9	39,500	162.7	30.3	12.5	9.4	1.2	1.1	20.4	32.4	10.0	12.2
A005610	SPC삼립	필수소비재	0.7	83,300	128.3	24.6	16.7	14.5	2.0	1.8	흑전	15.7	13.4	13.9

주: 종목 선정은 계량분석 방법론에 의한 것으로 당사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 2021년 5월 21일 기준

자료: E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하반기 투자 유망주2: 이익 증가율 상위, 연초 PER 고점 대비 하락폭 큰 종목

- 1) 하반기 연말로 갈수록 2022, 2023년 이익 증가율 지표의 주가 영향력 강화될 전망
- 2) 상반기 증시 전반적인 PER 상승 국면의 PER 최대치와 비교해서 현재 PER의 하락폭 평가
- 3) 2022, 2023년 영업이익 증가율 평균 15% 이상
- 4) PER 고점 대비(2020년 11월 이후) 현재 PER의 하락율 15% 이상
- 5) 2022년 eps 증가율 10% 이상

표4 스크리닝2: 이익 증가율 상위, 연초 PER 고점 대비 하락폭 상위 종목

코드	종목명	업종	시총 (조원)	주가 (원)	영업익 증가율 22,23평균 (%)	PER 하락폭 (%)	PER (배)		PBR (배)		EPS증가율 (%)		ROE (%)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A005930	삼성전자	반도체	478.2	80,100	17.5	18.6	15.0	11.8	1.9	1.7	39.0	26.7	13.1	15.2
A000660	SK하이닉스	반도체	89.2	122,500	21.3	46.5	9.2	6.4	1.4	1.2	102.9	45.0	17.2	21.0
A035720	카카오	소프트웨어	51.9	117,000	40.4	28.4	66.8	54.8	7.2	6.4	393.2	21.9	11.7	12.7
A006400	삼성SDI	IT가전	44.2	643,000	26.4	25.5	45.5	35.6	3.1	2.9	73.0	28.1	7.4	8.8
A096770	SK이노베이션	에너지	25.9	280,000	19.2	81.4	40.5	22.1	1.5	1.4	흑전	82.9	4.4	7.6
A034730	SK	상사,자본재	19.0	269,500	15.6	21.2	17.1	12.7	0.8	0.8	491.6	34.8	6.4	8.3
A090430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의류	16.6	283,500	21.2	17.2	49.7	40.3	4.0	3.7	1,020.1	23.4	8.5	9.7
A139480	이마트	소매(유통)	4.2	151,000	16.7	22.9	11.9	9.9	0.4	0.4	(2.5)	19.9	3.8	4.4
A008770	호텔신라	호텔	3.6	91,000	61.5	51.8	70.4	23.8	5.1	4.2	흑전	196.4	8.0	20.5
A020150	일진머티리얼즈	IT하드웨어	3.1	66,900	31.6	29.7	40.9	27.3	4.5	3.9	76.4	49.9	11.6	15.2
A112610	씨에스윈드	기계	3.1	72,700	24.6	31.9	32.3	27.2	3.6	3.3	166.4	18.6	14.8	12.7
A009240	한샘	건설	2.6	109,000	18.2	17.3	27.6	23.1	2.8	2.4	42.9	19.3	14.4	15.3
A000990	DB하이텍	반도체	2.4	54,100	15.3	28.4	11.4	9.4	2.4	1.9	27.5	20.8	23.7	23.0
A011210	현대위아	자동차	2.2	81,500	30.6	22.6	18.0	12.4	0.7	0.7	101.4	45.4	3.9	5.5
A064350	현대로템	기계	2.3	20,800	19.1	25.0	47.6	29.5	1.6	1.5	34.2	61.2	3.4	5.2
A192820	코스맥스	화장품,의류	1.2	116,500	18.4	18.8	18.1	15.5	3.0	2.5	208.5	17.2	17.7	17.7
A093370	후성	화학	0.9	10,000	66.7	56.5	35.0	16.2	n/a	n/a	342.2	116.2	n/a	n/a
A079550	LIG넥스원	상사,자본재	0.9	39,500	33.1	35.6	12.5	9.4	1.2	1.1	20.4	32.4	10.0	12.2

주: 종목 선정은 계량분석 방법론에 의한 것으로 당사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 2021년 5월 21일 기준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하반기 투자 유망주 3: 이익 퀄리티 우량주, 수익성 개선 및 이익 증가 종목

- 1) ROE, 영업이익률 등 이익 퀄리티 투자지표들은 작년 이후 성과 약세(주가 영향력 약화) 지속했으나 하반기 금리 상승 우려, 변동성 증가 국면에서 방어적 포트폴리오 구축에 유리하다는 판단
- 2) ROE,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2021, 2022년에 전년 대비 개선될 종목
- 3) 2021년 ROE 8% 이상, 2021, 2022년 EPS 증가율 10% 이상 종목

표5 스크리닝3: 이익 퀄리티 우량주, 수익성 개선 및 이익증가

코드	종목명	업종	시총 (조원)	주가 (원)	영업이익률 (%)		순이익률 (%)		PER (배)		PBR (배)		EPS증가율 (%)		ROE (%)	
					2021	2021	2021	2021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A005930	삼성전자	반도체	478.2	80,100	18.3	13.6	15.2	11.9	1.9	1.7	37.6	27.5	13.0	15.2		
A000660	SK하이닉스	반도체	89.2	122,500	15.7	7.4	9.0	6.1	1.4	1.1	102.4	46.0	17.2	21.1		
A000270	기아	자동차	33.5	82,700	3.5	3.1	8.3	7.4	1.0	0.9	170.8	12.7	12.8	12.9		
A017670	SK텔레콤	통신서비스	22.3	309,500	7.2	5.0	10.5	8.8	0.8	0.7	61.4	20.2	9.2	9.9		
A090430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의류	16.6	283,500	3.2	4.3	51.1	41.4	4.1	3.8	1,020.1	23.4	8.5	9.7		
A018880	한온시스템	자동차	8.7	16,250	4.6	4.5	24.9	20.0	3.8	3.4	211.2	24.5	15.6	17.8		
A032640	LG유플러스	통신서비스	6.4	14,650	6.6	3.5	9.6	8.5	0.8	0.8	44.3	12.6	8.9	9.4		
A011790	SKC	화학	5.0	131,000	7.1	2.5	30.7	26.1	2.4	2.2	325.5	17.6	8.5	9.4		
A003410	쌍용C&E	건설	3.9	7,670	17.0	8.5	23.3	20.4	2.2	2.2	19.4	14.2	9.7	11.2		
A010060	OCI	화학	3.0	127,500	(4.3)	-30.5	11.3	9.5	1.1	1.0	흑전(18.9	10.0	10.8		
A000080	하이트진로	필수소비재	2.5	36,100	8.8	-2.1	22.0	19.3	2.2	2.1	33.7	13.6	10.5	11.3		
A009240	한샘	건설	2.6	109,000	4.5	2.5	26.7	22.4	2.7	2.4	42.9	19.3	14.4	15.3		
A031430	신세계인터내셔널	화장품, 의류	1.6	217,500	2.5	5.2	20.8	17.2	2.3	2.0	51.6	20.5	11.5	12.4		
A241590	화승엔터프라이즈	화장품, 의류	1.1	18,050	5.6	5.2	17.5	12.5	2.1	1.8	75.8	39.4	12.7	15.4		
A192820	코스맥스	화장품, 의류	1.2	116,500	4.8	2.4	18.8	16.0	3.1	2.6	208.5	17.2	17.7	17.7		
A079550	LIG넥스원	상사, 자본재	0.9	39,500	4.0	0.2	11.7	7.8	1.2	1.1	29.1	50.4	10.7	14.6		

주: 종목 선정은 계량분석 방법론에 의한 것으로 당사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 2021년 5월 21일 기준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6 국가별 밸류에이션, 이익증가율 체크

국가	PER(배)			PBR(배)			ROE(%)			배당수익률 Trailing (%)	EPS 증가율(%)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World	26.6	19.4	17.5	2.89	2.75	2.54	10.9	14.2	14.5	2.2	(11.5)	37.0	10.7
선진시장	27.5	20.4	18.4	3.09	2.94	2.73	11.2	14.4	14.8	2.1	(12.8)	35.1	10.7
신흥시장	21.6	14.7	13.2	2.03	1.91	1.74	9.4	13.0	13.2	2.3	(4.1)	47.4	11.0
유럽	24.4	17.2	15.5	2.10	1.99	1.89	8.6	11.6	12.2	2.5	(26.3)	41.8	10.7
APx Japan	26.5	18.6	17.3	1.92	1.83	1.76	7.2	9.8	10.2	2.8	(26.5)	42.2	7.8
한국	23.6	12.2	11.4	1.38	1.34	1.23	5.8	11.0	10.8	2.2	16.6	93.5	7.2
미국	30.2	22.5	20.3	4.57	4.31	3.90	15.1	19.1	19.2	1.9	(8.8)	34.0	10.8
영국	21.7	13.5	12.6	1.78	1.73	1.64	8.2	12.8	13.0	3.1	(36.7)	60.8	7.3
독일	22.4	16.0	14.0	1.86	1.72	1.62	8.3	10.7	11.5	2.5	(14.2)	39.8	14.1
프랑스	32.6	18.8	16.4	1.93	1.84	1.75	5.9	9.8	10.6	2.3	(43.0)	73.4	14.5
일본	20.1	17.0	15.1	1.46	1.43	1.34	7.3	8.4	8.9	2.0	21.2	18.0	12.5
대만	23.0	22.3	16.2	2.90	2.67	2.52	12.6	15.3	15.6	2.4	25.6	31.8	8.1
중국	19.3	16.4	14.0	2.14	2.01	1.81	11.1	12.3	12.9	2.2	3.5	18.0	17.1
홍콩	25.2	19.0	16.7	1.43	1.36	1.30	5.7	7.2	7.8	2.5	(26.6)	32.8	13.6
인도	31.2	22.7	19.4	3.55	3.25	2.91	11.4	14.3	15.0	1.2	6.9	37.7	16.6

주: IBES 컨센서스 기준

자료: Refinitiv,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7 한국 업종별 밸류에이션, ROE 체크

업종	PER(배)				PBR(배)			EV/EBITDA(배)			ROE(%)			배당수익률 Trailing (%)
	2020	2021	2022	12M Fwd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KOSPI	24.9	11.9	11.1	11.6	1.28	1.21	1.11	9.5	6.7	5.8	5.1	10.2	10.0	1.8
에너지	적자	15.8	13.1	14.5	1.24	1.22	1.14	적자	8.5	8.0	(8.6)	7.7	8.7	1.0
화학	45.8	12.8	13.2	13.0	2.01	1.91	1.71	14.2	7.5	7.1	4.4	14.9	13.0	1.0
비철금속	17.6	11.0	11.4	11.5	1.03	0.98	0.95	7.7	5.8	5.5	5.9	8.9	8.3	2.0
철강	46.5	8.5	8.6	8.5	0.65	0.62	0.58	8.3	4.3	4.1	1.4	7.3	6.8	1.6
건설	10.5	8.4	7.4	7.9	1.00	0.97	0.88	7.2	5.1	4.0	9.5	11.6	11.9	1.7
기계	적자	13.0	11.9	12.5	1.29	1.13	1.04	13.8	6.4	5.6	(1.3)	8.7	8.8	0.5
조선	적자	적자	88.1	적자	1.04	1.05	1.03	적자	38.3	18.8	(9.9)	(2.5)	1.2	0.1
상사, 자본재	28.3	13.2	12.1	12.7	1.00	0.93	0.88	7.5	5.9	5.6	3.5	7.1	7.3	1.9
운송	적자	13.6	12.2	12.7	2.01	1.63	1.44	11.3	7.1	6.4	(0.1)	12.0	11.8	0.9
자동차	33.1	9.6	8.2	9.0	0.87	0.81	0.75	11.7	6.9	6.1	2.6	8.5	9.1	1.3
화장품, 의류	33.6	18.4	16.5	17.6	2.28	2.63	2.33	11.3	8.5	7.6	6.8	14.3	14.2	0.7
호텔, 레저	적자	적자	18.8	62.0	2.36	2.65	2.39	적자	38.0	9.4	(16.3)	(2.7)	12.7	0.1
미디어, 교육	적자	38.8	21.8	29.3	2.45	2.68	2.46	70.3	10.8	8.7	(11.6)	6.9	11.3	0.9
소매(유통)	861.3	14.0	10.8	12.4	0.60	0.59	0.56	8.3	6.6	6.0	0.1	4.2	5.2	1.6
필수소비재	14.9	11.6	10.3	11.1	1.02	1.07	1.01	6.6	6.2	5.6	6.9	9.2	9.8	2.4
건강관리	94.5	61.8	52.3	57.4	6.30	6.88	6.06	45.0	38.8	33.6	6.7	11.1	11.6	0.1
은행	6.2	5.0	4.8	4.9	0.46	0.42	0.39	n/a	n/a	n/a	7.4	8.4	8.1	3.6
증권	6.6	5.0	5.5	5.2	0.71	0.67	0.62	n/a	n/a	n/a	10.8	13.3	11.3	3.4
보험	9.9	7.9	8.5	8.2	0.45	0.46	0.44	n/a	n/a	n/a	4.6	5.8	5.2	3.1
소프트웨어	53.8	9.0	30.8	12.8	4.74	3.27	2.98	18.5	21.1	15.5	8.8	36.3	9.7	0.3
IT하드웨어	29.0	12.2	10.8	11.6	1.77	1.64	1.44	8.3	5.6	4.9	6.1	13.5	13.3	0.6
반도체	18.5	12.4	9.5	11.0	1.78	1.65	1.46	6.6	5.1	4.0	9.6	13.3	15.4	3.3
IT가전	31.6	19.6	16.5	18.2	2.67	2.33	2.06	12.2	8.4	7.4	8.5	11.9	12.5	0.3
디스플레이	적자	7.1	7.4	7.2	0.77	0.65	0.60	4.9	2.5	2.4	(1.4)	9.1	8.2	0.0
통신서비스	14.1	9.8	8.6	9.2	0.82	0.78	0.73	4.1	3.8	3.6	5.8	8.0	8.5	3.3
유틸리티	10.1	적자	19.7	47.4	0.30	0.29	0.28	6.1	7.7	7.0	3.0	(0.0)	1.4	3.8

주: 시장 컨센서스 기준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8 한국 업종별 이익 증가율 및 전망치 변화

업종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영업이익 전망치 변화율(%)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1	2022
업종전체	(4.0)	13.8	7.4	4.7	61.8	16.1	17.3	104.9	7.2	5.9	3.2
에너지	(27.7)	26.9	9.2	적자전환	흑자전환	6.8	적자전환	흑자전환	20.3	29.8	15.5
화학	(2.6)	32.9	10.0	17.1	184.8	(0.5)	115.0	335.9	(2.9)	22.2	14.0
비철금속	8.7	16.8	1.6	15.3	22.5	3.9	4.3	29.9	0.7	5.7	2.6
철강	(10.4)	15.2	2.9	(33.8)	175.8	(0.9)	(42.7)	368.5	(1.1)	23.2	18.1
건설	3.9	12.1	10.2	6.6	37.1	16.6	12.6	36.3	12.5	2.3	1.8
기계	(1.5)	13.1	6.4	13.4	49.0	9.9	340.4	127.9	9.4	10.8	8.0
조선	(5.7)	(1.3)	6.8	적자전환	적자지속	흑자전환	적자지속	적자지속	흑자전환	적자전환	(25.5)
상사, 자본재	(10.0)	10.2	4.6	(43.6)	119.9	11.7	(23.5)	107.4	9.0	8.3	5.9
운송	(10.5)	12.4	8.5	46.5	143.5	9.0	흑자전환	2,529.2	11.8	16.6	10.6
자동차	(1.9)	14.6	6.5	(21.7)	118.1	14.7	(38.5)	178.4	16.6	(0.2)	1.0
화장품, 의류	(7.4)	15.1	8.7	(16.5)	62.9	10.1	(12.6)	75.6	11.3	12.7	9.6
호텔, 레저	(46.5)	18.1	47.8	적자전환	적자지속	흑자전환	적자전환	적자지속	흑자전환	적자전환	6.7
미디어, 교육	(18.6)	18.5	16.5	(75.9)	386.3	51.3	적자지속	흑자전환	78.2	7.6	6.6
소매(유통)	0.4	7.5	5.9	(23.2)	61.2	21.2	(86.8)	2,881.9	29.5	(0.2)	1.6
필수소비재	4.2	7.2	4.4	17.8	7.2	9.6	70.9	32.2	12.4	(1.6)	0.2
건강관리	13.0	16.5	8.8	34.4	73.6	15.6	80.5	55.2	18.1	5.9	2.6
은행	n/a	n/a	n/a	(0.1)	16.2	4.2	(0.9)	18.9	3.7	7.6	4.7
증권	n/a	n/a	n/a	36.9	25.5	(8.7)	24.3	26.8	(8.3)	9.9	6.8
보험	n/a	n/a	n/a	36.5	(6.6)	(10.5)	30.8	29.3	(6.7)	14.0	3.5
소프트웨어	13.8	18.9	14.8	19.7	20.4	30.6	55.5	542.7	(70.8)	(5.3)	(3.0)
IT하드웨어	15.2	20.5	9.2	18.2	62.2	13.4	11.0	98.8	11.7	4.9	4.2
반도체	4.5	14.7	11.0	34.7	48.5	31.6	31.4	48.8	30.4	3.0	(0.1)
IT가전	3.5	13.8	7.1	33.3	44.8	14.0	434.3	56.8	19.2	7.7	5.6
디스플레이	3.2	20.0	(2.1)	적자지속	흑자전환	(9.8)	적자지속	흑자전환	(4.2)	14.2	13.4
통신서비스	2.7	4.1	3.6	15.8	16.1	9.2	35.3	43.3	14.3	4.4	3.2
유틸리티	(5.9)	4.0	4.3	937.0	(60.7)	71.1	흑자전환	적자전환	흑자전환	(45.1)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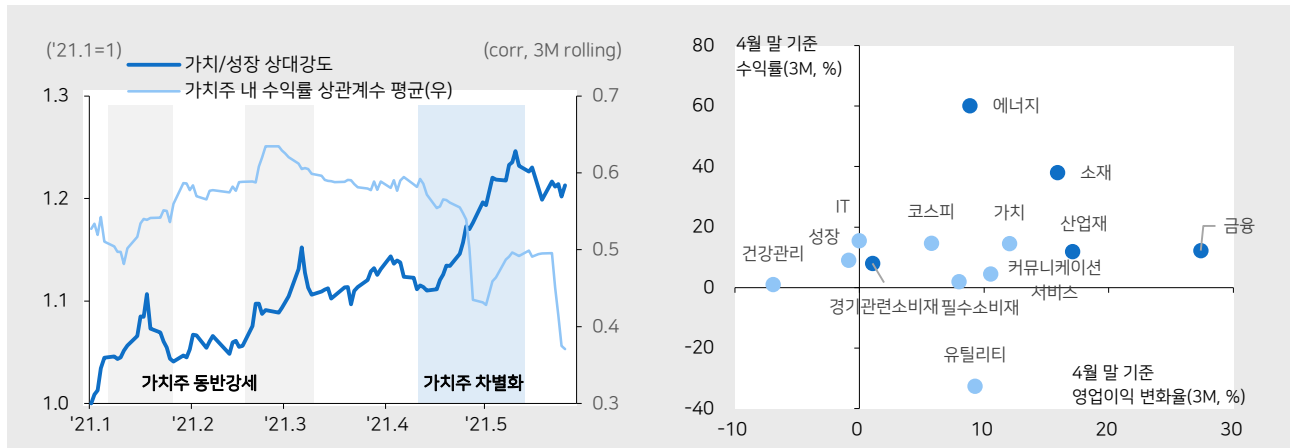
주: 시장 컨센서스 기준, 영업이익의 전망치 변화율은 1개월 전 기준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오늘의 차트

이진우 연구위원

'순환매'라 쓰고 '실적 장세'라 읽는다



주1: 가치주 내 수익률 상관계수 평균: 가치주 중심 업종(에너지, 소재, 산업재, 경기소비재, 금융)간 3개월 수익률 상관계수의 평균

주2: 짙은 파랑색 표식: 가치주 중심 업종(에너지, 소재, 산업재, 경기소비재, 금융)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도주의 공백 속 소외 업종(종목) 중심의 시장 흐름을 순환매 장세라 일컫는다. 혹자는 연초 이후 가치주 강세와 맞물려 '가치주(ex. 경기민감주) 순환매' 장세라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눈 여겨 볼 것은 지난 1, 3월의 가치주 강세국면과 5월 가치주 강세 국면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가치주 동반강세 국면과 가치주 차별화 국면으로 구분

지난 1, 3월은 가치주 업종들의 상관계수 평균이 상승할 때(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가치주도 강세를 보인 가치주 동반강세 국면이다. 실제로 업종들의 추세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추세가 가치주 강세를 견인했다는 의미이다.

반면, 이번 4월의 경우 가치주 내 업종들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차별화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가치주 강세가 두드러진 국면이었다. 이를 가치주 순환매 장세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으나, 본질적인 차별화를 야기한 요인에 대해 집중해보고자 한다.

차별화의 핵심은 결국 실적으로 귀결

가치주 내 상관성이 낮아진 4~5월은 국내기업들의 1분기 실적발표 기간이었다. 즉, 실적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던 시기이고, 나아가 실적 개선이 지속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성과를 주도했다. 에너지, 소재, 산업재, 금융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였고, 향후 이익들의 상향 조정으로 이어져 이익 모멘텀 팩터가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다.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변화율(3개월): 에너지 +60%, 소재 +38%, 산업재 +12%, 금융 +12%). 반면, 경기소비재 업종은 아웃라이어인 네 업종에 비해 시장 평균 수준을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부진한 주가를 기록하였고 상관계수 하락을 견인하였다.

해당 관점에서 4월 이후의 가치주 순환매장은 결국 실적에 의한 업종별 차별화로 귀결된다. 장기적으로는 순환매라는 측면을 벗어나 시장을 관통하는 요인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칼럼의 재해석

강봉주 연구위원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바라보는 Fed의 시선 변화(Forbes)

당초 디지털 달러화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던 Fed(이하 연준)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로, 민간발행 암호화폐와는 다르게 공신력이 담보된다. 기존 연준은 해당 이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했으나 최근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연준 이사 브레이나드는 CBDC를 바라보는 연준의 긍정적 시각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전세계에서 디지털 화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패권전쟁을 하고 있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개발 속도가 다른 나라들을 앞서고 있는 현재 이와 같은 연준의 입장 변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브레이나드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디지털 화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1) 스테이블코인(실물화폐와 1대1 교환비율을 가진 민간발행 전자화폐)이 광범위하게 유통된다면 의해 미국 결제시스템이 분열될 수도 있어, 하나로 통합된 체계의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2) 타국으로의 디지털 송금 등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서 기축통화국으로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상화폐와 전자화폐를 바라보는 연준의 시선은 크게 성장한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접근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며, 미국의 적극적 관여 발언은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 유지 의지와 향후 예견되는 미중 디지털 화폐 경쟁을 시사한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연준

연준 이사,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필요성 언급

5월 24일(현지 시간) 연준 이사 레이얼 브레이나드는 현재 Fed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이하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란 기존의 실물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이용자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화폐이다. 민간이 발행하는 암호화폐와 다른 점은 법정통화라는 점으로, 실물 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되어 화폐의 공신력이 담보된다.

그림1 암호화폐 vs CBDC vs 실물화폐

암호화폐	CBDC	실물화폐
공신력 ↓	공신력 ↑	공신력 ↑
편의성 ↑	편의성 ↑	편의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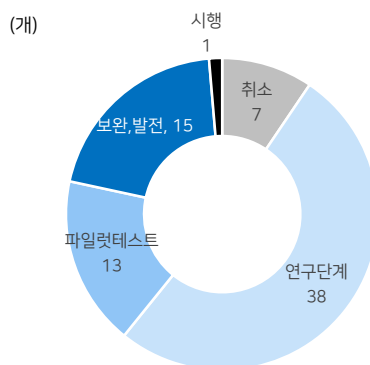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 현황

세계 각국 CBDC 개발 및 연구
착수: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 증가

세계 각국이 상기한 CBDC, 디지털 화폐의 개발 및 유통에 서두르고 있다. 국제문제 싱크탱크인 '대서양위원회'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CBDC를 개발 혹은 연구 중인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 74개국에 달한다. 암호화폐와 전자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해당 화폐들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선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 또한 한국은행에서 CBDC를 개발, 오늘 8월 모의실험에 착수하며, 영국, 일본 등의 국가 또한 CBDC 연구그룹을 구성하거나 개발 중에 있다.

그림2 세계 74국 CBDC 개발현황



주: 1. 연구단계 - 2. 파일럿테스트 - 3. 보완/발전 - 4. 시행 의 개발단계

자료: cbdctracker.o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디지털 위안화 개발과 시사점

중국 디지털 위안화 개발 및 유통
현황: 확연히 앞선 발걸음

그러나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디지털 화폐 개발에 확연히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한 중국은 여러 가지 방안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시험하고 있다. 민간이 주도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경제주권을 침식할 수 있다는 생각 아래 가상화폐 채굴 및 거래 활동에 규제를 가했으며,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여러 대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험이 진행되고 있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맞춰 디지털 위안화를 정식으로 선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준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입장

미국 디지털 화폐 개발의 필요성:

1. 결제시스템 통합
2.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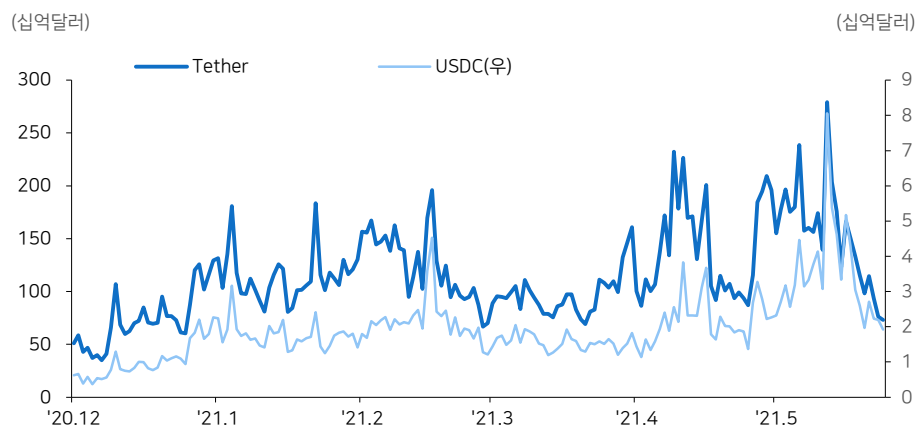
상기한 현황 아래, 5월 24일(현지시간) 미 연준의 브레이나드 이사는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마련한 화상 행사에서 디지털 달러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당초 연준은 디지털 화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현재시점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디지털 화폐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달러 도입 필요성1: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미 결제 시스템 분열

1. 결제시스템 통합
- :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분열 우려

스테이블코인은 민간발행의 전자화폐라는 점에서 기존 암호화폐와 비슷한 점을 공유하지만 기축통화인 달러와 1대1 교환비율을 가진다는 점에서 변동성이 적어 암호화폐와 구별되는 성질을 가진 전자 화폐이다. 미국 내에서는 USDC, Tether의 스테이블코인이 각각 5월 30일 기준 220억 달러, 61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으며, 일간거래대금 또한 21억 달러, 750억 달러에 달하는 등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

그림3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 추이 (Tether, USDC)



주: 2020년 12월 8일 이후

자료: Yahoo Financ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가상화폐와는 다르게 달러화에 고정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작지만 전자화폐로서의 기능은 수행할 수 있는 화폐이다. 민간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은 결제 시스템의 분열을 초래해 거래비용, 안정성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된 전자 화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달러 도입 필요성2: 기축통화국로서의 지위 유지

2.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 유지
: 전자 화폐 시스템 개발에 적극
적 관여

타국으로의 디지털 송금 등 전자 화폐 시스템 개발에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브레이나드 이사의 주장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이 디지털 화폐 도입에 착수하고 있고,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도입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역할을 언급하는 것은 미국이 기축통화국 지위 유지 차원에서도 디지털 달러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준의 디지털 달러 도입 논의가 주는 시사점

국내 시장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대금 증가
연준의 경계가 시사하는 바

5월 20일 기준,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의 거래대금은 43조에 달하는데, 같은 날 코스피 거래대금 14조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이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늘어난 국내 상황에서 연준의 가상화폐에 대한 경계는 국내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접근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현황과,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언급하며 디지털 달러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모습은 양국의 디지털 화폐 개발 및 도입이 경쟁적 흐름으로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당초 예상보다 각국의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유연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원문: Fed Governor Lael Brainard Slams Stablecoins, Calls For New Focus On Digital Dollars